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 (1)한라중학교, 한라산 둘레길 탐방

숲속 바람 맞으며... “파도소리 같아요”

생소한 환경 경험하며
제주 자연과 역사 배워
둘레길 환경정화 병행

“책·TV에서 보던 식물
직접 보고 만지니 유익”

“흙길을 걷다보니 아스팔트가 싫어졌어요.”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돌다리를 건너는 게 스릴이 넘치고, 제일 기억에 남아요.” “숲에서 받은 교육 덕에 자연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한라중학교 학생 33명과 교사 2명을 비롯해 생태탐방에 나선 일행이 5일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연신 내뱉은 말이다.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는 ‘2019년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중학교 8곳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을 벗어나 숲에서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날 행사가 첫 행보다.

이날 탐방에는 제주출신 ‘나무박사’인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이 동행하며 제주숲에서 자라는 나무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한라산과 한라중학교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처럼 한라산은 우리가 지키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세계적인 자연자원입니다. 탐방 이후, 한라산에서 자라는 나무 330여종 가운데 2% 정도인 5~6개의 나무의 이름



한라중학교 학생 30여명이 5일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며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으로 부터 숲 이야기를 듣고 있다.

만이라도 잘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숲은 생명력이 팍 차 있어요. 사람들은 숲으로부터 정서적·신체적에서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전하고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김찬수 소장은 둘레길에서 만난 곱슬이며 표고버섯 재배에 썼던 참나무과의 서어나무, 제주 자생의 얼룩조릿대, 제주사람들이 제주어로 부르다 나무이름이 된 굴거리나무, 그리고 빨간 꽃이 피어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 독성이 강한 천남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열대·온대·한대로 나누는 다양한 식생을 비롯한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의미, 그리고 제주 역사를 들려주며 유익한 정보도 가미했다. 특히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비의 비문을 함께 읽으면서 1919년 3·1운동 5개월 전인 1918년

10월 7일 제주에서 일어난 무력항일 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에는 숲 탐방에 관심이 적었던 아이들도 점차 귀를 기울이며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파도소리’라고 표현했고, 최근 잇단 태풍으로 시원스럽게 계곡(고지천)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를 따라 경쾌하게 발을 맞췄다.

김건휘·고민규·부준혁 군은 “평소 알고 있던 얼룩조릿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빨강계 익은 열매나무의 이야기도 생소했지만 재미있다”며 “책이나 TV에서만 보던 식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다”고 말을 모았다.

김다림·고서예·김예주 양은 “계곡을 지나면서 바위를 밟고 물을 건너

는데 무섭기도 했지만 가장 재미있고 추억에 남을 것 같다”며 “나무와 식물, 곤충, 그리고 물과 미생물까지 숲을 이루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방단비 교사는 “이번 생태체험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에 익숙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숲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또한 아이들과 함께 제주의 한라산 둘레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정화활동하며 보람도 있다”고 전했다.

어른들이 바라보는 요즘 청소년들의 군상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이날 아이들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건강한 활동을 했고 인성도 자연스럽게 쌓았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농어촌 안전인증제, 기준 완화 효과보나
작년 말 지정민박 총 39곳에서 올 7~9월 19곳 추가

도, 수시로 신청받아

제주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지만 저조한 참여로 실효성 논란이 일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기준을 완화하면서 안전인증을 지정받는 민박이 이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안전인증 지정 민박이 39개소(제주시 31, 서귀포시 8개소)에서 올들어 7~9월 석달간 19개소(제주시 12, 서귀포시 7개소)가 추가됐다. 8월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이 4210개소(제주시 2671, 서귀포시 1539개소)임을 감안하면 안전인증 민박은 여전히 손꼽을 정도지만 기준 완화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민박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 7월부터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안전관리·위생관리 등 5개 분야 20개 지정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 100점을 받아야 지정하던 데서 85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또 신청도 연 1회만 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받고, 매월 한 차례 신청업소에 대한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안전인증 지정요건이 까다로운데 비해 인센티브는 적어 업계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정업소에 관광진흥기금(운영자금 3000만원까지)과 농어촌진흥기금(개보수자금 2000만원까지)을 저리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 필수요건인 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비가 부담된다는 업소 의견도 반영해 올해부터 설치비의 50%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수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이전보다 관심이 늘어 신청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인구 10만명 당 평생교육사 5.3명

전국 평균은 10.38명

세종 이어 두번째 적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등이 운영하는 도내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수가 인구 10만명 당 ‘5.30명’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은 평생학습관 8곳, 평생교육진흥원 1곳 등 총 9곳이다. 지난해 이곳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수는 35명으로 도내 인구(전체 65만 8282명) 10만명 당 ‘5.30명’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4.84명) 다음으로 가장 적고, 전국 평균(10.3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구 10만명 당 평생교육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21.99명), 광주(12.28명), 대전(10.60명), 부산(9.18명) 순이었다.

김지은기자

도, ASF 유입방지 방역인력·시설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발생 방지를 위해 공·항만에 방역인력을 투입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을 통해 입도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검역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제선 검역업무에 중국어 통역 2명을 지원 배치한다.

또 국내 공·항만을 통해 도내로 입도하는 관광객 및 차량 등의 소독과 불법 축산물이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만 방역요원 8명을 추가 배치한다. 앞으로 방역요원은 자치경찰 등 총 31명이 된다.

통제초소는 한림읍, 동방골·별드

르단지 입구 등 2곳이 지난 4일부터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은 7일부터 조천읍과 구좌읍 2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거점소독시설은 총 9곳(제주시 6·서귀포시 3), 통제초소는 총 6곳(제주시 4·서귀포시 2)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역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해 청정지역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소방시설 주변 노면 정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2차 추경) 9000만원을 배정받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시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1499개소(도 58개소, 제주시 879개소, 서귀포시 56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승합차인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인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도민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기자

2019 MECENAT MATCHING GRANT

2019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 공모안내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은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서로 Win-Win 하는 파트너십 구조를 마련하고자 제주메세나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메세나결연을 통해 기업은 단순 후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공익성을 매개로 기업의 문화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예술단체와 예술가는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대표적인 메세나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뜻 깊은 동행'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상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상시접수에 따라, 매달 심의 진행 (예정)

신청자격

기업

예술단체 · 개인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기업

예술단체 · 개인

- 제주도내 소재 문화예술단체 · 개인
-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 단체
-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개인
- 메세나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개인 등

지원내용

기업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과 교류·협력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기업의 마케팅, 사회공헌 활동, 기업문화 개선 등
- 세제혜택 · 지원금 기부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

예술단체 · 개인

- 문화예술 기획, 창작, 교육활동 등을 위한 지원금
- 기업 자금과 도 지원금 매칭 지원
 - 단체 : ~ 최대 3,000만원 지원
 - 개인 : ~ 최대 1,000만원 지원
- ※ 단, 신규 공연예술창작 · 기획 프로그램 경우 1:1이상의 매칭 신청가능
- ※ 지원규모는 '메세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제주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60분 게시글
- 이메일 : jimecenat@naver.com (접수 후 확인 필수)
-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사업설명문의

문의방법

- 방문 : 월 ~ 금 오후 2시 ~ 5시 내 가능 / 제주메세나협회 사무실
- 전화 : 064-724-6689, 064-724-6686
- ※ 방문 문의 시, 사전 연락 후 일정 조율 필수



(사)제주메세나협회
Jeju Mecenat Association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